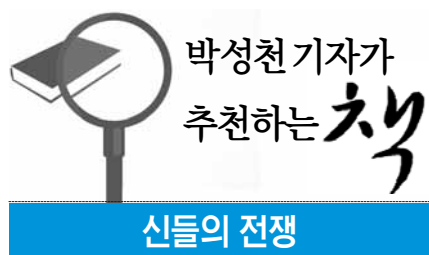


라이벌이 있어 더 드라마틱한 스포츠 승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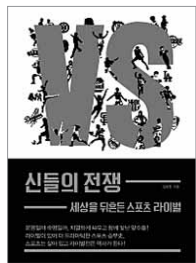
얼마 전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은 감동의 드라마였다. 특히 '빙속 여자' 이상화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하고 우승자인 고다이리와 함께 경기장을 돌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고다이리가 이상화를 안아주며 격려하는 모습은 최고의 라이벌을 향한 존경과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었다. 이상화 역시 정정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고다이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



신들의 전쟁

김동훈 지음

밤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다. 그 부담에서 해방된 지금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맞수가 있어야 기량이 좋아진다"는 말은 스포츠 세계의 영원한 진리다"고 말했다.



스포츠는 라이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이벌'은 같은 분야에서 서로 겨루는 '맞수'를 뜻한다. 역사 속 무수히 많은 라이벌이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만큼 라이벌이 극명한 분야도 없다. 확연하고도 정확하게 기록과 기량이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함께 빛났던 스포츠 라이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발견됐다. 한겨레신문 김동훈 기자가 펴낸 '신들의 전쟁'은 라이벌이 있어 더 드라마틱한 스포츠 승부사(史)를 조명한다.

현역 시절 뛰어난 기량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스포츠 스타들도 추천사를 남겼다. 하계 국가대표팀 감독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내용처럼 비정한 승부의 세계지만 라이벌은 승부욕을 불태우며 나를 재찍질하는 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흥행보 대한체육협회 전문위원은 "한-일전 전날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패더러와 나달...

맞수가 있어야 기량이 좋아지는

스포츠 스타 60명의 승부 세계

또한 대학부터 프로까지 라이벌 관계를 이루며 서로의 성장을 견인했던 한국 농구의 역사 서장훈과 현주엽,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최고 선수 논쟁을 유발하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거나 여전히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라이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많은 라이벌들의 경기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링위의 혈투를 벌였던 김일과 안토니오 이노키, 끝까지 않은 퍼펙트 게임으로 기억되는 최동원과 선동열, 야달과 아신의 자존심 대결로 평가받던 김응용과 김성근의 경기는 여전히 화제되는 감동의 드라마다.

저자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도 소개하며 치열했던 승부 역사를 펼쳐낸다. 크리켓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종목이다. 두 나라가 맞대결을 벌이면 선수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사활을 건다.

또한 책에는 맞붙기만 하면 화제가 되는 팀들의 혈전도 담겨 있다. 잠실별 한 지붕

두 가족인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어린이날마다 펼쳤던 혈투, 밤비노가 가른 희비의 라이벌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영원한 축구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경기 등 끝나지 않는 맞수들의 이야기는 뜨거운 관심거리다.

책을 읽고 나면 '스포츠는 살아 있고 라이벌전은 역사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저자는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따라서 속명적으로 라이벌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크루이프의 말처럼 그는 나의 좋은 친구이자 형제"라며 "라이벌을 극복하느냐, 라이벌에게 순응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해답은 바로 라이벌에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폭스코너·1만7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한 이상화 선수와 우승을 차지한 고다이리 선수가 서로를 격려하며 경기장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천 엮음 '이용악시전집'

'향토 시인' 이용악은 한국 근대시사에서 현실의 질곡을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형상화한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41년 함북 경성에서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탈구지에 소금을 싣고 러시아 영토를 넘나들던 중 객사했고 어머니는 다섯 형제 모두를 교육시키느라 어려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했다.

가난이 몸에 밴 이용악은 일본 조치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풀밭이와 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학 기간에는 간도 등지를 답사하며 만주 유이민의 참담한 삶을 눈으로 확인했다. 유이민들의 고통스럽고 우울한 삶을 묘사하는 데 있어 그는 자신의 '가족사'를 매개로 탁월하게 그려냈다.

이용악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이용악 시전집'이 출간됐다. 문학평론가이자 인하대 명예교수인 윤영천이 자료를 추가해 완성한 책은 시인이 창작한 시뿐만 아니라 산문, 미수록 시 등을 두루 담고 있다.

책은 월북 전 작품과 이후 작품, 산문, 논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북 전 작품으로 시집 '분수령', '낡은 집', '오랑캐꽃', '이용악집'의 수록작과 미수록작이 담겨 있으며 이후 작품으로 '이용악 시전집'의 수록작 및 시집 미수록작이 포함돼 있다. 산문은 이용악이 쓴 인상기와 번역 후기 등이, 논고에는 당대 문인들이 쓴 작품론과 이본 책의 책임 편집을 맡은 윤영천의 이용악론이 있다.

이처럼 시전집은 1930년대 중후반을 대표하는 이용악의 시 세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인간과 사회의 역사적 불화를 '거짓 없는 기록'으로 남겼던 이용악의 시는 역사적 고통과 처참함을 환기한다. <문학과학지상사·3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지연 지음 '경복궁 시대를 세우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 지칭되는 삼봉 정도전은 경복궁의 전각 이름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역사 속의 이상적인 군주는 누구인가? 권력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나아가 이상적인 군주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물음에는 조선인들이 지향한 새로운 체제와 그 권력이 행사되는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경복궁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집이었다.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장지연 교수가 펴낸 '경복궁 시대를 세우다'는 '세 권력은 왜 세 수도를 요구하였나'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저자는 한양 천도에 앞서 공양왕(1389년~1392년)이 재위했던 2년 반 기간에 벌여졌던 정치 투쟁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이 시기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동적이고 다면적인 변화의 시대였다. 그로인해 새 왕조의 새 수도 결정은 전통적 권위의 영향과 새로운 권력이 교차하는 극적인 선택이 됐다. 한양 천도가 이성계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족적을 남겼다는 의미다. 특히 저자는 경복궁의 전각 규모와 순서가 사실은 새 정치와 이상을 추구했던 정도전과 당대 개혁 세력의 염원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조선이 건국되던 시기의 레이어를 탐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의 단면을 평평하게 늘어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권력이 성립하던 그 시대의 기획을 이해함으로써 변화의 방향과 이를 추동할 힘을 읽어내고, 그것이 현실에 부딪치며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이다."

<너머북스·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저우바오쑹 지음 최지희 옮김 '어린왕자의 눈'

"이 그림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야?"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꼬기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어린왕자' 중에서)

이 장면을 기억하는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의 첫 장면이다. 주인공은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그림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진다. "이 그림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어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야?" 이미 동심을 잃고 현실에 치여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는 '보아구렁이를 삼킨 꼬기리의 그림'이 그저 '모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동화 속 이야기이기만 할까? 어린왕자가 7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그림을 보여준다면, 그 그림 속에 담긴 본질을 알아볼 수 있을까? 홍콩의 정치철학자인 저자 저우바오쑹은 '어린왕자의 눈'을 통해 "어른들이 보아구렁이를 보지 못하고 모자만 본 것은 그들은 이미 직관적으로 진실을 꿰뚫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걸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어린왕자'와 함께 삶의 중요한 본질을 찾아 나선다.

그는 특히 "왜 지금, 어린왕자인가"라는 물음에 "세상이 암울하고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낄수록 꿈과 신념이 필요하며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럴수록 '어린왕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엇보다 꿈, 사랑, 우정, 관계, 죽음 등 인류 보편의 고민을 '어린왕자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따뜻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한다. <블랙피쉬·1만45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혈액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
4주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속옷의명가

KCPBA 2016,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 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